

전환시대의 평민유교 II*

- 박경리 『토지』 서희와 길상의 갈등과 화해의 메카니즘 -

서 욱 수**

1. 머리말
2. 불평등 구조의 해체와 평등 사조의 유입
 - 1) 전환기 평민의 인식전환과 관념적 이중성
 - 2) 사회구조 변화와 신분 갈등의 임계점
3. 양반유교와 평민유교의 충돌 양상
 - 1) 반상의 윤리적 이견과 서희와 길상의 갈등
 - 2) 시대적 요구와 갈등해소의 동기
4. 맺음말

<국문초록>

전환기 조선은 유교 중심의 봉건 제도를 혁파하고 새로운 근대 문화를 수용하면서 변화를 모색했던 시기이다. 특히 조선은 망국의 과정에서 근대화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한계 극복과 제국주의 식민 전략에 맞선 투쟁이라는 이중 난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의 해체는 오랫동안 양립했던 신분의 차별을 해소할 기회를 주었고, 양반유교와 평민유교의 차별적 지위를 수평적으로 무마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역사소설 『토지』에 재현된 조선 말기와 일제 초기의 사례를 기반으로 양반유교와 평민유교의 융합 과정을 검토해 본 실험적 연구이다. 신분의 해체와 더불어 양반과 평민의 이념 또한 해체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토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051).

**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blackikarus@hanmail.net)

는 유교를 기초로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완고한 양반 세력과 불교나 무속, 나아가 동학의 이념을 근간으로 변화하는 세대에 대응하려는 평민 세력의 신분적, 이념적 충돌과 화해의 과정을 개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소설 전개는 조선의 격렬한 변화 과정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이 소설의 저자는 전환시대 조선의 역사를 소설의 형식으로 재현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전환기 조선 역사는 불행한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이념 재창출의 역사라는 관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도리와 배려의 유교적 이념과 영성과 교감의 전통 종교 이념을 융합한 평민 중심의 민족 이념 생성을 설명한다. 이러한 전통은 해방을 지나 오늘날까지 그 위력이 유효하다.

* 주요어: 평민 유교, 도리, 배려, 평등의식, 근대화, 화해

1. 머리말

역사소설은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흥미 위주로 편집하거나 재구성하여 입체적으로 조각하는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창작의 목적을 위해서 과거의 시점을 차용하거나 야사를 소재로 대중소설과 융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역사소설이 소재나 의상과 같은 단순히 외면적인 것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다는 의식이 있다. 즉,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제가 과거든 현재든 상관없이 ‘역사의식’을 소설의 당위적 전제로 삼고 있어서 역사소설이라는 개념은 이 ‘역사의식’이라는 개념 속에 수용되는 경향이다.¹⁾ 이 경우는 정사를 근거로 민족의식을 고취하거나 역사적 사실들을 입체적으로 재현하는 효과가 있다.

박경리의 『토지』는 ‘기록된 역사로부터 추방된 혹은 침전된 인간들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복원, 재구성했다.’²⁾는 평가가 있는 만큼 작가의 지나친 주관만 배제한다면 역사 연구에서 사료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작가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search.daum.net>, 검색일: 2022.06.13.)

2)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139쪽.

스스로도 “진실이 머문 강물 저편을 향해 한치도 헤어날 수 없는 허수아비의 언어, 그럼에도 언어에 사로잡혀 빠져날 수 없는 것은 그것만이 강을 건널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전율 없이 그 말을 되풀이할 수 없다.”³⁾고 말하는 만큼 기록되지 않은 평민의 역사를 소설의 방식으로라도 복구하고자 했던 열망과 이를 통해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가상의 등장인물들만 제외한다면 역사적 사건을 비롯하여 전환기 조선의 환경이나 평민들의 의식은 기록된 역사로부터 역사 연구자들이 추론한 사실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작가는 조선말부터 일제 강점기의 중요 사건들, 가령 동학 혁명, 3.1 운동, 만주를 중심으로 벌어진 무장 독립투쟁 등을 서사의 모티브나 시간적 좌표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동학의 이념적 가치나 한계를 주시하고 양반 유교와는 다른 평민 유교의 다양한 특색을 드러내고자 한다. 동학은 이념의 융합성이 강하다. 서학이나 유학의 이념 노선과는 차이가 있다는 관점에서 동학이라 한다. 조선 민간의 이념을 강하게 지배해 온 무속의 주술을 융합했기 때문에 근대적 합리성을 벗어난 경향도 있다. 동학 전쟁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적을 활용한 사례들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동학은 주술적 祭儀만 융합한 것이 아니다. 하늘과 사람을 수직적 예속 관계로 보는 서학이나 유학의 입장과는 달리 사람과 하늘을 수평적 관계로 본다. 그래서 人乃天이다. 유교의 국가적 이념은 평민 속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었으나 유교적 祭儀의 본질은 양반과 평민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대적 분위기에서 ‘반역의 피가 억압된 상민들의 진실이요 소망’⁴⁾이라고 작가는 생각한다. 그것은 아마도 하늘과 사람, 상민과 양반이 동등한 실존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하늘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의 종적 질서를 횡적 평등으로 치환하고자 했던 당시 사람들의 열망을 반영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전환기 조선의 신분적 동요나 갈등이 유독 심했던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토지』의 주인공으로 재현된 서희와 길상의 갈등과 화해는 이러한 조선의 현

3) 박경리, 『土地』, 솔 출판사, 1993. 3부 1권, 제 1책 서문(이하 권-쪽만 표시)

4) 6-153.

실을 상징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토지』에 자주 등장하는 道理나 先塋奉祀와 같은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양반과 상민이 크게 차이가 난다. 가령 양반의 경우 이들을 양반에 대한 순종이나 조상의 업적에 대한 과시로 인식하고 이를 당시 사회의 문화 지표로 활용하고자 했다. 반면 상민은 이들을 사람 사이의 예의범치나 조상에 대한 연민이나 추모의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었다.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忠, 孝와 같은 유교 덕목에 대해서도 양반(지배계층)과 상민(피지배계층)이 이해를 달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상명하복의 종적 질서를 강조한 양반의 주류 의식을 호혜평등의 횡적 질서로 의미를 전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것은 양반의 경우, 유교를 형이상학적 관념론으로 유인한 계기가 되었고, 상민의 경우 동학 혁명과 같은 실천운동과 척양척왜와 같은 자주권 투쟁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서희와 길상의 서사에서는 최씨 가문의 권위와 권력 부활에 대한 집착과 서희와의 신분 투쟁과 독립 운동이라는 대립 구도로 소설화 되었다. 말하자면 민족의 전환기 현실이 한 가문의 역사로 환치되어 metaphor 형식으로 재현된 것이다. 이 소설을 소재로 이 논문은 세습적 신분의 차별, 현실적 권력의 전횡, 외세의 침략에 저항한 전환기 평민들의 투쟁과 그 필연적인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로 기획 되었다. 필연적 전개 과정이란 신분의 차별 해소, 권력의 합리적 행사, 민족 해방으로의 과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 적용된 평민들의 이념은 세습적이고 박제된 전통적 유교 윤리가 아니라 유교 이외의 다양한 전통과 현실적 실용의식이 반영된 실천적 유교 윤리라는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불평등 구조의 해체와 평등 사조의 유입

1) 전환기 평민의 인식전환과 관념적 이중성

폐정개혁을 조건으로 발화한 1984년 동학농민혁명의 요구는 그해 갑오개혁에 다수 반영되어 반상이나 문무의 차별 철폐가 시행되었고, 노비법 혁파,

천민 신분의 면천 등 민생과 직결된 사회개혁이 법률상으로는 완성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이식된 서구식 근대화는 신분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 대신 재화나 자본 중심의 근대적 가치관을 유입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가치관의 충돌과 전환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층 일부 민중들 사이에서는 신분에 대한 자각적 의식이 확산되고 있었고 『토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의 소설적 복원으로 채워져 있다.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천한 백성들은 평등을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 왔으나 그것은 꿈이라고만 할 수 없다”⁵⁾는 송관수 류의 인식이나 “죽보에 허리 굽힌 내 아버지는 별수없이 상놈의 피가 흐르고 있었더라 그 말일세.”⁶⁾라는 식의 반감은 그동안 양반 권위의 자양분이 되어왔던 평민들의 수동적인 패배주의를 의식적으로 수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민들의 인식 전환과는 별도로 형식상의 신분 철폐와 봉건적 지배구조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주와 소작농의 예측 관계는 현실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농민의 노동은 구조적으로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었다. 오히려 이전의 봉건 구조에서 새로운 군국주의적 전시 구조로 전환된 만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퇴행이 진행되고 있었다. 더불어 식민 지배 권력의 강화와 근대적 기계 생산 시설의 도입에 따라 농민의 노동 가치는 최소의 생존조건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했다. “양반놈들 농사지어 쳐먹이고 길쌈하여 앞 가리주고, 그러고도 갓인 천대 다 받아야 했이니, 이자는 사람 손 마다하고 냅다 기계를 돌리서 무진장으로 광목 옥양목을 짜낸다”⁷⁾는 분노는 이러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역사소설로서의 『토지』는 이러한 시대적 사실들을 소재로 당시 평민들의 현실적 갈등과 욕구를 입체적으로 재건하고 있다. 특히 전환시대의 특성상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윤리적 이중성이나 심리적 혼돈의 적나라한 양상과 해소 과정을 보여 준다.

윤리의 이중적 양가성이나 심리적 혼돈은 반상이나 신분 차별의 법적 해

5) 5-169.

6) 9-410.

7) 7-109.

소에도 불구하고 주종의 경제적 예측 구조의 지속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오히려 기존 세력의 경제적 지배력 강화에 따라 종속 구조의 악화가 심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예의염치나 도리 등의 전통적 윤리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상반된 양가적 행동이나 태도가 대중⁸⁾의 집단의식에 기생하여 비양심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토지』의 사례에서 보자면 북동네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심술궂은 봉기 노인을 타작마당에서 공개 처벌하는 동리매⁹⁾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봉기 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가해자와 심판자로 대치되고 심판자인 마을사람들이 돌팔매로 응징 하지만 사실은 마을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북동네 자살의 공범이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비난과 돌팔매는 자신들의 과오를

8) 서양의 경우 대중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대중은 “정념”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문명의 질서를 위협하는 적이라는 인식이 근대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플라톤의 경우 군중은 너무나도 쉽게 선동에 매몰되어버리는 존재로 인식한다거나 마키아벨리처럼 원칙적으로 대중을 국가질서의 잠재적인 교란자로 이해하는 정도였다. 이후 근대 초기 스피노자에 이르러 비로소 대중의 힘을 단순히 수동적인 요소로만 간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지현, 「문명/야만의 경계와 대중개념: 서양 근대 태동기의 국가·정치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17, 사회와철학연구회, 2009, 8~28쪽 참고.

대중이라는 개념은 근대사회와 더불어 등장한 민중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1950년대 미국 사회학에서 나온 대중사회론에 의해서 소비적·향락적·익명적인 존재로 파악된 대중이나 파시즘의 수동적인 조작의 대상이었던 대중과는 달리 창조적·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다음백과(<https://search.daum.net>, 검색일: 2022.06.13.)

작가는 일본의 대중성을 전근대적 맹신의 광기로 본다. 그는 “일본이 전쟁의 광기 앞에서 군부보다 오히려 백성이 앞장 서는 것은 정부의 유도, 세뇌에 기인한다. 일등국민, 세계의 강국 등의 과장된 관념을 주입하고, 신국이라는 환상을 백성들에게 감염시킨다. 그래서 광신의 늪처럼 그들의 정신은 벗어날 수 없으니 대중이란 우매하고 허약한 것이다.”라고 한다. 박경리, 『토지』, 13-323.

9) 전통적인 촌락사회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적인 사회 통제의 방안으로 돌림·출향(黜郷)·조리돌리기·화지개 등의 벌칙이 있어 왔는데, 동리매는 죄지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처벌을 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처벌은 대개 마을의 어른들에 의하여 제안되어, 동네 회의를 거쳐 결정된 뒤에 마을 사람들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search.daum.net>, 검색일: 2022.06.13.)

10) “타작마당은 마치 싹이 한풀이의 장소로 변해간다. 상대가 심술궂기로 이름난 봉기였고, 안 좋은 꼬투리는 대개 한두 개쯤 갖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고소해하고 한층 신이 나는 모양이다. 말뚝같이, 송곳같이 북동네 심장을 때려 박고 찌르지는 않았으나 치더라도 뒤꼍에서 바늘 하나쯤은 북동네 심장에 꽂았을, 그런 위인일수록 이상하게 남보다 분개하고 규탄하고 처단하자는 주장이 강했으니 그것도 양심인지 모를 일이다.” 8-332.

은폐하는 무언의 대중적 합의요 일종의 씻김굿이다. 양가적 이중성과 같은 대중의 악마적 속성에 의탁한 집단 합의는 신분 질서나 도덕 윤리와 같은 전통적 가치와 황금만능의 근대적 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발생했던 자기모순이다. 물론 개인적 이익에 따라 뇌동하는 양가적 대중성은 시대를 떠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법이나 제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억제되는 반면 위기시에는 생존 불안과 더불어 악의 평범성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기 마련이다. 전환기의 조선 사회는 이 지점에 있었다.

이러한 집단 광기는 서회는 물론이고 조준구나 이상현 등 이른바 이전 선비 계층에서 근대적 지식인으로 둔갑한 등장인물 대부분의 경우에서 지식인 Lumpen¹¹⁾의 형식으로 등장한다. 이것 또한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충돌의 유산이다. 조선 사회는 봉건 신분 질서가 통용되었던 정서적 유대와 양반의 사회적 권위라는 전통적 가치로 명맥을 유지하던 사회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서 일제 초기에 유입된 이성 중심의 서구적 합리주의와 경제적 자산을 앞세운 근대적 가치에 의해 봉건적 전통은 와해 단계에 진입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범위하게 돌출했던 현상이 평민들 사이에 난무했던 행위의 양가성이요 냉소주의로 무장한 지식인 Lumpen들의 등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각적 개별 평민도 등장한다. 이전 일제 식민지시기에 악화된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생존 하부 구조의 가족은 더욱 집단주의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억압과 왜곡된 경제구조에서 합리적 절차와 수평적 연대의 기회는 차단되었고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보존에 집착하게 되었다. 또 일제 식민 권력에 의해 가족주의가 강화된 측면도 있다. 식민지적 근대화는 철저하게 반유교적인 근대화였으나 일제는 유교의 제반 가치 중 수직적 상하관이나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같이 강압적 통치에 유리한 부

11) 1930년대 신식교육이 확산되면서 지식인의 수효는 훨씬 많아졌다. 그러나 그만큼 고등실업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룸펜'이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변했고 스스로를 멋스럽게 룸펜이라고 부르는 치도 늘었다. 룸펜이라는 말은 독일어에서 누더기, 엉마란 뜻으로 제정러시아 시대의 서구파 자유주의자들을 이르는 말로 지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회층 지식계급을 의미하며 이들의 본질적인 속성은 반항과 불안, 무기력 등이다.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꺾하라』, 현실문화연구, 2004, 120쪽. 권은미, 「박경리 『토지』의 탈식민적 양상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37쪽, 재인용.

분만 발췌하여 적극 활용하였으며, 가족주의적 가치 역시 식민지 세력에 의해 차용·확대되었다.¹²⁾ 이러한 극단적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게 작동하던 전환기 평민의 욕구는 평민 집단의 신분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전이된다. 『토지』의 사례로는 길상이나 용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서희의 신분적, 가족주의적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길상과 윤보, 주갑이 등을 부러워했다는 용이의 경우가 그렇다.¹³⁾ 가장으로서 봉건적 가족주의의 사회적, 윤리적 구속력을 벗어나지 못한 대부분 평민들과는 달리 길상이나 용이와 같은 일부 怨民들은 현실적 실현 여부를 떠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선구적 위치에 진입하기도 했다.

또 기존의 양반 계층에 대한 인식에도 구분이 있었다. 조선의 평민들은 같은 반열인 양반과 선비를 인격적으로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선비를 부패하고 수탈을 일삼는 권력층의 대항 세력으로 보았고 정치적 통치와 윤리적 수양이라는 유교적 범주에서 선비는 후자의 주체라고 인식했다.¹⁴⁾ 이에 따라 인간의 도리를 행동의 근본으로 실천하는 선비에 대해서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다. 이들 선비 집단은 주로 몰락한 양반을 중심으로 기존의 성리학적 공담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부류들이다. 이른바 실용, 실사를 바탕으로 실학적 가치를 지향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현실이나 이념적 지향이 근접해 있었다. 따라서 당시 평민들은 이들 선비들의 생각과 행동에 동조하고 신분이나 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평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선비에 대한 공감과는 별도로 평민들의 양반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이중적이다. 즉 한편으로는 양반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통혼과 같은 신분 변동의 기회에 집착한다. 평민 대중들은 피해자로 존재했던 역사적 반감으로 양반을 조롱하고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통혼 등을 통해서 양반의 권위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반대로 그들 평민 대중들은 백정, 무

12) 이명호, 「한국 가족중심주의의 역사적 기원: 조선후기와 근대 전환기 종교 영역과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54쪽.

13) 7-285.

14) 11-281.

당, 갓바치 등 천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양가적 이중성을 보이기도 한다. 농청과 형평사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토지』를 관통하는 작가의 끈질긴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작가는 『토지』에서 형평사 운동은 갑오개혁의 합법적 신분 타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존했던 차별과의 충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실례라고 본다. 또 진주에서 조직된 衡平社는 자제에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치열한 희망을 표시하는 백정과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시민들 간의 투쟁의 산물로 보아야 하는데, 형평사가 진주에서 조직된 것은 인간 대접을 받고자 한 백정들의 자각 때문¹⁵⁾이라고 설명한다. 신분에 관한 평민의 모순적인 태도, 이중적 양가성도 넓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신분적 변화에 대한 자각의 증상이기도 하고, 신분적 장벽을 해소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 사회구조 변화와 신분 갈등의 임계점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대략 17세기 근처에서 합방 전까지 조선 사회의 신분 구조가 가장 유동적이었던 건해가 많다. 이 시기는 양반의 급격한 증가, 상민의 감소, 천민의 소멸이 진행되었다.¹⁶⁾ 물론 신분상의 '변화와 지속성'¹⁷⁾이라는 관점에서 신분 변화에 대한 이견도 다수 있겠으나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급속한 변동의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표본 편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1870년 전후로 양반의 비율이 7할을 넘었다는 일부 지역의 분석 결과¹⁸⁾로 보아 사실상 양반이라는 독점적 지위는 현실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듯 당시 정부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기존의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하려 노력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구래의 신분제 자체가 1894년 이전에도

15) 8-206.

16) 김인걸, 「1960, 70년대 '內在的 發展論'과 韓國史學」, 『韓國史認識과 歷史理論』, 金容燮教授停年紀念韓國史學論總 1, 지식산업사, 1997, 131~137쪽.

17) 이훈상, 「回顧와 展望 ; 韓國史學界 1993~1995(朝鮮後期)」, 『歷史學報』 152, 歷史學會, 1996, 229쪽.

18) 정석중, 「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崩壞-蔚山府戶籍大帳을 中心으로」, 『大同文化研究』 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4, 전편.

법제적 규정력 보다는 사회적, 관습적 규정력이 더 강했던 만큼 대중이 지니고 있던 구래의 신분의식이 단순히 법제상, 제도상의 개혁으로 단기간에 해소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여기에는 기존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기존 양반 세력의 저항도 있었으나 일반 평민 사이에 장기간 학습된 ‘인질 효과’도 작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의 추세는 평민들의 생존 기반을 흔들었고, 생존조건을 유동성은 일부 전위적 평민층부터 봉건적 세습에 대한 전복 의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타고 평민의 평가 기준은 봉건적 세습 권력에서 근대적 자본 권력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말하자면 양반의 권위는 신분이 아니라 토지를 비롯한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결정 되었고, 양반과 상민의 신분적 구분보다는 지주와 소작농의 경제적 예측 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양반과 평민 사이의 신분 요동은 농업 생산 인구의 변동에서도 발견된다. 전환기에는 양반의 특권적 지위가 박탈되면서 신분상으로는 양반의 지위이나 현실적으로는 일반 상민과 다를 바 없는 窮班寒族이 농민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지주와 소작농의 예측적 구속관계와 더불어 내부적 갈등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토지』의 등장인물 중에서 김훈장이나 김평산 같은 부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일반 상민들과 동일한 경제적 지위와 피지배적 집단에 속해 있으나 부계 혈통의 보수적 권위에 의지하여 일반 평민이나 양반 지주들과 배타적 상호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신분의 형식적 격차를 해소하고 소통하기도 한다.

양반 다수가 유입된 조선 농민 사회의 의식구조는 대체로 보수적이었다. 일부의 자작농을 제외하고 합방 이전 조선사회의 농민은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로 농민은 생산물에 대한 일정한 소유 지분을 보장받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에서 안착했던 노예주와 노예의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농민이나 도시 평민들의 생활 영역에 궁반한족들이 밀착해 있었으므로

19) 윤인수, 「日帝時代に 발생한 大韓帝國時期 임명장 위조의 양상과 사회적 배경 : 농촌의 신분의식 잔존 양상과 관련하여」, 『古文書研究』 34, 한국고문서학회, 2009, 51쪽.

형식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도시든 농촌이든 일반 평민들은 실질적으로 양반화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신분 탓으로 평민은 사대부들 의식을 모방하려는 성향도 있었고 여기에 편승하여 평민들의 속성이 보수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²⁰⁾ 나아가 일제 강점기에 이르면 평민들의 이러한 색채는 더욱 짙어진다. 왜냐하면 기존의 봉건 구조는 경험적으로 볼 때 최소한의 생존 조건은 보장 하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특성상 구조의 변화는 이 조건마저도 박탈할 것이라는 공포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탈에 대한 공포는 한편으로 신분적 위계에 대한 반감을 심리적으로 극대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적 생산과 분배 구조를 옹호하는 봉건사상의 전위 역할을 감수했다. 특히 농촌 농민들의 이러한 아이러니한 이중적 태도는 앞서 언급한 천민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더불어 오로지 생존 욕구에 따라 대중적 여론을 스스로 조작하던 ‘양과 늑대의 양면성’²¹⁾에 기인한다. 그러나 일제의 간섭이 극대화 되던 갑오개혁 이후 한국 농업의 토지 소유관계는 이른바 지주계층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토지 집적의 강행과 자소작상농층 및 빈농층의 제권리(소작권, 도지권으로 불리우던 영구차지권, 토지사용권, 소작료 정액권 등) 확보를 위한 갈등과 투쟁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²²⁾ 더 나아가 1910~1918년까지 진행된 토지조사 사업은 기존의 봉건지주와 농민대중의 갈등을 악의적으로 봉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소작지에 형성된 소작농의 각종 권리(관습상의 경작권, 도지권 등)를 모두 소멸시키고 지주의 소유권만을 배타적인 사유권으로 인정, 재법인함으로써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던 봉건적 지주 제도를 새로운 근대적 형태-식민지적 지주제도로 재창출하였다.²³⁾ 뿐만 아니라 국가 자본은 총독부의 관유사업을 통해 주로 철도, 도로, 항만 등에 투하되거나 화폐, 금융 등 자본주의적 유통 구조의 확립에 주로 투자 되었다.²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농민들의 공포를 극

20) 11-126, 283.

21) 8-322~323.

22) 李鎬澈, 「식민지하 한국의 농업경제를 형성한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155쪽.

23) 신용하,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일고찰」, 『한국 근대사론』, 지식산업사, 1977, 163쪽.

대화 시키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무력화와 농업 기반의 사회적 구조를 이탈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생존과 결탁한 절대 다수 농민 대중들의 수구적 전통은 봉건적 농업 생산 구조로부터의 이탈과 동시에 새로운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거나 혁명적 반봉건, 반외세의 저항모드로 전환된다. ‘遂滅倭洋’, ‘屍山血海’²⁵⁾로 상징되는 동학군의 저항은 반외세나 반봉건을 기치로 내건 투쟁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외형적인 명분보다는 기존의 양반 유교 카르텔에 대한 저항이자 평등 사회를 지향한 평민 유교의 문화적, 윤리적 혁명이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선 평민들은 상하 서열이 아니라 좌우 연대의 평등 구조로 전환하는 근대적 자각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곧 그동안 표출되었던 신분, 계층간의 갈등이나 윤리적 갈등을 표면화 시켰다. 수구적 양반들이 “짚신 신고 대창 든 상놈들이 미쳐 날뛰는 세상”²⁶⁾이라 한탄하는 반면 “백정, 갓바치라는 이름이 더럽나, 세상이 더럽지.”²⁷⁾라는 평민 대중들의 반론은 이 시대의 신분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합방 이전 동학 혁명기를 기점으로 자생한 班-常 사이의 내적 갈등은 합방 이후 일제에 의해 이식된 식민지 자본주의의 흐름을 타고 표면화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간다. 그것은 합방 이전 양반과 평민간의 대립 구도에서 합방 이후 일제라는 외부의 적과 대치하면서 양반과 평민은 자연스럽게 연합의 양상을 띄고 상호 협력하면서 내부의 갈등을 조율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 대립의 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라 양반과 평민은 자연스럽게 수평적 존재로 전환된다. ‘평민에 대한 숙적과 같은 감정과 주종 같은 의식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이조 오백 년의 권위 의식과 그 존엄성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순간’²⁸⁾을 경험하는 상현과 같은 지식인 Lumpen들의 현실 인식은 대세를 이해하고 변화에 순응

24) 윤병석, 「일제 식민지 통치기의 시대 구분 문제」, 『한국 근대사론』, 지식산업사, 1985, 30쪽.

25) 3-321.

26) 1-147.

27) 11-349.

28) 9-246.

하는 시대 분위기를 대변한다. 국가 운명의 주체로 거듭 날려는 평민의 행동에 대한 양반 계층의 본능적인 반감과 신분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과시하는 다수 평민들의 충돌은 경제적 구조 변화와 더불어 평민의 정치적, 신분적 구조 변화의 필연적 양상을 암시하는 사례들이다. 작가는 작품 전체에 걸쳐 이러한 갈등들을 일관되게 전시한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 조선의 중요한 쟁점이 경제와 신분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암시로 읽힌다.

전환 시대의 흐름에서 특히 주목해 볼 다른 변화는 강한 봉건 가족주의의 유대를 벗어난 서구적 개인주의가 파편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신분갈등의 임계점을 벗어난 새로운 휴머니즘의 등장은 경제적으로 봉건 지주의 와해와 더불어 봉건적 유대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근대적 사조이다.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하게 작동하던 전환기 평민의 욕구는 평민 집단의 신분적 자유에서 드디어 개인적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전이된다. 길상이나 용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²⁹⁾ 서희의 신분적, 가족주의적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길상과 윤보, 주갑이, 서금돌 등을 부러워했다는 용이의 경우가 그렇다. 가장으로서 봉건적 가족주의의 사회적, 윤리적 구속력을 탈피하지 못한 대부분의 평민들과는 달리 길상이나 용이와 같은 일부 怨民들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실현 여부를 떠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적 자유를 꿈꾸는 근대적 자아의식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주체에 대한 현실적 자각을 전제로 가족 중심의 봉건적 사유에서 개인의 자유를 인식하는 민주적 사유로의 전환하는 소설 속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한복의 경우가 그렇다. 아버지와 형님의 악마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가 “나는 나다!”³⁰⁾라고 선언한 것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평민 욕구의 임계점 돌파와 주체적 자각의 실현을 의미한다. 임계점을 돌파한 주체적 자각의 실현이란 당시 평민들이 윤리적으로 양반에 종속된 주종의 수동적 책임감이 아니다. “사람의 도리는 상놈 양반 다 마찬가지다.”³¹⁾라는 용이의 생각처럼 신분이나 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평민 개개인이 주체적이고

29) 7-285.

30) 7-310.

31) 1-64.

능동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양반 의식의 잔존 여부를 떠나서 평민의 개별적 자아에 대한 독립적 인식은 이후 일제와 맞서 독립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1운동과 같은 적극적 참여 동기로 작동하기도 한다.

3. 양반유교와 평민유교의 충돌 양상

1) 반상의 윤리적 이견과 서희와 길상의 갈등

성인으로서 서희와 길상이 애정이나 신분적인 문제로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는 대략 용정 시기부터이다. 이 시기의 사회적 배경은 그동안 법적인 신분 철폐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지속되어 오던 양반과 평민의 차별적 구분이 그 관습마저도 효력을 상실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평민에 의해 양반이 노골적으로 비난당하거나 조롱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형평사 운동과 같은 평민 이하 집단의 사회적 욕구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전환시대라는 시기의 특성상 구질서의 와해에 직면한 양반 계층은 신분에 대한 회의와 좌절을 체감하고 있었다. “도리가 본래는 양반의 것이었으나 지키기론 상놈들이 더 열심”³²⁾이라는 상현의 푸념이 이를 반증한다. 이 시기까지 도리에 대한 이해는 양반과 평민이 달랐다. 물론 이동진의 경우처럼 상민들을 결코 오합지졸로 생각하지 않고 민중의 단합을 높이 평가했으며 국권의 연장을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는 위정자의 愚拙을 통렬히 비난했던 양반들도 다수 있었을 것이다.³³⁾ 그러나 대개의 경우 양반들은 봉건 구도와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양반에 대한 복종을 도리라고 강요하는 반면 평민의 경우 생활의 규범으로서 사람의 행실에 도리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서희와 길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양반 계층은 도리의 의미를 主從의 상명하복이 수직적으로 관철된 봉건 법도라고 보았으나 평민층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교여 관계를 도리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물론 일본에 의해 근대적 신분질서가 안착되던 시기에도 양반층의 끈질진

32) 4-200.

33) 2-294.

권위 욕구와 평민들의 양반에 대한 선망 의식은 잔존하고 있었다. 1921년 4월 함경남도 함흥에서 위조 임명장을 판매했다가 체포된 陳伯英 같은 이는 위조임명장을 사두면, “조선이 독립되는 동시에는 훌륭한 양반이 된다”³⁴⁾라고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1919년 3·1운동 당시 일부 양반, 유생 계층에서 “만약 독립이 성취되면 우리는 한국 시대에 있어서와 같이 관직을 얻고 사회 上班에 설 수 있다”라는 풍문도 있었던 데다 이에 편승하여 조선이 독립되면 관직을 주선하겠다고 금품을 사취한 사건까지 이미 있었다³⁵⁾는 사례들로 보아 일제 식민지 근대화가 한창 진행되던 이 시기에도 여전히 양반에 대한 선망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정석종이 울산부 농소면의 호적을 분석한 결과 1729년에서 1867년까지 양반호는 26.29%에서 65.48%로 증가했고, 상민호는 59.78%에서 33.96%로 감소했다³⁶⁾는 분석 결과로만 본다면 신분 매매는 일부의 은밀한 여진에 불과했으리라 본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더하여 교량, 도로의 보수 등과 같은 사역 차출을 班常에 똑같이 부과하는 등, 근본적으로는 과거의 신분체제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양반의 권위와 실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³⁷⁾ 이것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이 증가할수록 양반 신분에 대한 봉건적 인식은 권위를 상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만 양반이 경제적 해계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결탁한 신흥 지주로서 여전히 전통적 권위와 위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설 속 서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서희와 관련된 서사에서 작가는 여전히 유효한 양반의 전통적 권위와 위세를 그려내고 있다.

34) 『朝鮮日報』, 1921년 4월 17일.

35) 조선헌병대사령부·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조선 3·1 독립 소요사건-개황, 사상 및 운동」, 『독립운동사 자료집』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951, 975쪽.

36) 노재현, 「바람직한 국사 참고서 서술 방향 탐색: 조선후기 신분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8, 9쪽 재인용. 양반의 숫자가 감소했다는 의견과는 반대로 최재석, 송준호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양반 사회는 오히려 견고하게 유지되었다는 반론도 있다고 한다. 위의 논문, 14~15쪽.

37) 李榮薰, 「18, 19세기 大渚里의 身分構成과 自治秩序」,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293쪽.

서희의 길상에 대한 과장된 위세는 길상에 대한 연정 때문에 스스로 양반의 권위를 포기하는데 대한 반발 심리의 작동이지만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지 과정이기도 하다. 혼란스러운 식민지 상황에 대한 반발은 김훈장 류의 근왕적 復辟主義에 기대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양반 계층의 다수들도 있었으나 자신들의 자산과 권위를 지키기 위한 수구적 부류들도 다수 있었다. 수구적 양반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양반 계층은 일본과 결탁하거나, 위계에 대한 세습적 확신을 추종하거나, 현실의 변화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유지한다. 서희의 경우가 그렇다.

“내 천길 낭떠러지를 뛰어내리듯 너를 택하려 하기는 했으되 어찌 감히 너 스스로가 생심을 품을 수 있단 말이나? 하늘의 별을 따지, 어림 반푼이나 있는 일이겠느냐! (중략) 감히 하인의 신분으로서!”-‘아아, 나를, 이 나를 모두가 덤벼서 떡을 치는구나. 너라는 떡메로 나를 치는구나. 아아아 미치겠구나’³⁸⁾

“아래것이면 아랫것답게 내 명령을 좇으면 될 일이지 주재님께 누굴 보호하며 누굴 감싸겠다는 말이나 (중략) 아랫것인 주재에 나를 가엾게 여겨?”³⁹⁾

인용의 서사는 신분 와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불안한 심리적 이중성이 드러나는 독백이다. 양반과 평민, 서희와 길상 사이에 그어진 신분적 경계의 와해에 대한 체념의 역설적인 의미가 읽힌다. 또한 길상과의 신분적 경계를 스스로 허무는 고행적 태도로서의 자학적 역설이 읽히기도 한다. 전환시대의 양상은 이처럼 시대적 흐름, 정치적 현실을 수용하면서 변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는 하인 신분의 길상은 더 이상 양반의 권위를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수직적 권력 구조를 수용하지 않는다. 서희와 길상의 정서적 충돌은 반가의 독선이라는 고정관념과 현실적 불만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표출된

38) 4-203.

39) 3-282.

상민의 분노이다.⁴⁰⁾ 이는 각자 가문 유지라는 명분과 독립운동과 선택의 자유라는 개인의 근대적 권리 충돌이다. 그러나 이 충돌은 길상의 감정적 연민이라는 정서적 안전지대 안에서의 충돌이며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 오늘부터 최서희 종놈 아니기로 했소이다. 아가씨! 돈방석에 앉은 놈만 도도한 줄 아시오? 피죽 먹는 놈도 도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신주 모시고 족보에 곱팡이 실는 양반네만 기고만장한 줄 아시오? 상놈 백정도 기고만장 못하란 법 없지요.”⁴¹⁾라는 저항은 서희의 언사와 비교하면 형식상으로는 같듯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의 연민 안에서 던지는 신분, 권위, 가치의 통합과정이다. 특히 길상의 언사는 현재와 미래에 닥칠 신분적 차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통첩이고, 이에 대한 서희의 감정적 대응은 불가피한 수용을 전제한 일종의 씻김굿이다. 결혼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차별 해소에 대한 서로의 확인 과정이기도 하다.

양반 지주로서 서희와 같은 부류들 모두가 변화에 적대적이거나 고루한 봉건적 사유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서희의 경우 세 가지 정도의 특성을 가진다. 첫째, 전통적, 가부장적 신분질서에 저항한 인물, 둘째, 친일행위 와중에도 조선 고유의 문화적 우월을 내면화한 인물, 셋째,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모성을 스스로 회복하여 피지배 민중을 보살피는 실천적인 인물⁴²⁾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길상과의 화해를 모색할 수 있는 결정적인 출구이기도 하다. 서희의 현실적 욕망이 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길을 막았을지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희생을 적절히 감내하는 탄력적 태도를 보인다. 지킬 것 없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평민들과는 달리 지켜야 할 나름의 개인적 가치가 있었던 서희의 입장은 단순한 방법적 차이이다. 화해와 분노의 경계에서 서희와 길상이 화해의 길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였을 것이다. 반상의 신분적 단절, 권력의 봉건적 독점, 부의 항구적 불평등이 근대의 바람을 타고 해소할 수 있는

40) 7-183.

41) 4-409.

42) 이미화,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 『한국문학논총』 49, 한국문학회, 2008, 145~146쪽.

아래로부터의 혁명 의식이 조선 평민들 속에 깊이 각인된 계기가 서화와 길상의 갈등과 화해 속에 상징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2) 시대적 요구와 갈등해소의 동기

1930년 이후 완력적 제압 대신 문화적 세뇌에 집착한 식민 정책은 점차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미신 타파나 민족 개조라는 이름의 문화적 자기부정은 패배주의에 기생하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확산 되었다. “개명과 지식인들, 일본물 마시고 서양서 온 기독교에 목욕한 사람들, 미신 타파를 외치고 민족 개조를 외치고 조선인을 계몽하려고 목이 터지는 사람들, 미신을 타파하면 땅을 찾고, 수천 년 내려온 조선의 문화를 길바닥에 내다버려야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있는 듯이 행세하는 지식인들”⁴³⁾이 출현한다. 이들은 明治維新 이래 脫亞入口를 선언 하면서 서구적 근대화 대열에 선착한 일본 제국주의 전략의 전위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식민지 계몽주의’는 인종적·종교적·언어적 타자들을 제국의 관리들이 운행하는 진보·근대성이라는 이름의 기차에 승차시켜 종착역으로 수송한다. 약탈, 점유, 착취로 구성되는 식민주의를 악마와 미신으로부터의 구원과 야만과 더러움으로부터 진보라고 위장·분칠한 것이 식민지 계몽주의의 본질이다.⁴⁴⁾ 서구-근대-진보라는 계몽주의의 낙관론으로 무장하고 앞서 이룩한 일본의 서구식 근대화와 조선의 봉건 전통을 문명과 야만의 틀에 배치, 이를 양가적으로 분할한 후 이를 명분으로 조선의 개명을 주장한다. 계몽주의의 핵심요소인 “이성의 찬양은 다른 문명권의 믿음체제를 비합리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으로 실격”시킴으로써 “제국의 야비한 본성을 그 희생자들과 가해자 모두로부터 감추는 이데올로기적인 사탕발림으로 작동”한다⁴⁵⁾는 Daniel Carey와 Lynn Festa의 견해에 동조한다면 조선의 일부 지식인은 일본의 식민지 전략에 철저하게 말려든 셈이다.

43) 10-17, 14-65.

44) 옥영수, 「‘식민지 계몽주의’에 관한 트랜스내셔널 시각과 비평 : 근대의 자원병 혹은 징집병」, 『서양 역사와 문화연구』 41,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16, 9쪽.

45) 위의 논문, 4쪽, 재인용.

그러나 반대로 ‘유교 사상에 길들여진 조선 백성들의 절제된 의식 속에 유전된 예절과 검소 그 격조 높은 선비정신, 생략할 수 있는 데까지 생략하는 세련된 미의식을 수천 년 몸에 벤 조선 사람들의 버릴 것 없는 문화’⁴⁶⁾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저항을 주도하고 있었다. 문명과 야만의 양가적 잣대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재단하는 모순 상황은 식민지 약자가 겪어야 하는 숙명적인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역행할 수 없는 전환시대의 시대적 요구는 식민지 조선을 야만의 상태로 보고 계몽의 대상으로 폄하하거나 반대로 조선을 도도한 문명의 역사로 보고 외세를 야만으로 낙인찍는 갈등이 아니다. 오히려 조선의 시급한 당면 문제인 민족 해방이나 신분 해방과 같은 현재 모순을 타파하고 이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장인물 송장환의 소학부 수업 내용처럼 교육이나 계몽은 단순한 글쓰기나 산술 같은 초보적인 문맹 퇴치와 같은 탈야만의 일차적 목표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문명과 야만과 같은 차별보다 차이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체적 인식⁴⁷⁾이 변화를 주도하는 조선 주류 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갈등 없는 화해는 없다. 모순의 충돌은 화해를 지향할 때 비로소 공존의 가능성을 보장한다. 서희와 길상이 서로에게 연민을 품은 차이의 충돌이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화해를 향한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비록 서희의 성향이 보신주의나 기회주의적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최 참판 댁의 권위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치부나 친일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서희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⁴⁸⁾ 이에 비해 길상은 양반의 도리에 대한 관점을 극렬히 비판한다. 평민 일반이 지향한 유교적 가치로서의 도리는 양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유포하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는 양반의 도리란 남은 찌꺼기를 던져 주는 것을 은혜로 보고 이를 값은 예측적인 태도를 도리로 본다고 비판한다. 양반 집단의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유교윤리의 해석이라면 그것은 양반과 평민의 신분 차별이 형식적으로나마 철폐된 전환기의 분위기에서는 타파

46) 10-11.

47) 4-128.

48) 4-175.

되어야 할 구습에 불과하다. 그래서 길상은 도리란 동정이나 은혜가 아니라 수평적 정 또는 연민이라고 생각한다.⁴⁹⁾ 정이나 연민은 유교적 의미로 보면 仁의 현실적 실현이다.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마치 조상이 옆에 계신 듯 하고, 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마치 신이 앞에 있는 듯 하였다.”⁵⁰⁾는 공자의 말처럼 조선 평민 사회의 유교 윤리는 그 가치의 외형적 형식이 아니라 내적 실효성에 천착한다. 여기에는 양반 유교의 경직된 허례 의식에 대한 반론이 내포되어 있다.

조상에 대한 孝, 神에 대한 敬의 마음, 즉 외형적 허례가 아니라 진실된 誠意⁵¹⁾는 조선의 평민들에게서 일제시대 식민지 근대사회로 이어진 전환시대의 평민유교 윤리로 자리 잡았다. 조선의 상식으로 자리잡은 이러한 평민의 道理를 우리는 情이라 통칭한다. 길상이 “사람의 정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남에게 좋게 보여도 정이 없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⁵²⁾라는 말은 봉건적 질서에 길들여진 허례에 대한 당시 평민 일반의 비판적 분노를 대변하는 감정이다. 또 이러한 길상의 항변과 비판은 신분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면서 신분을 극복해 가는 길상의 주체적인 해법이다. 박경리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토지』의 서사에 반영하여 상민들이 더 신실하게 도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인 祭儀보다 정한수 한그릇으로 망인에 대한 정회의 눈물을 흘리는 서민의 제의가 대세라는 관점을 보인다.⁵³⁾ 양반인 서희와의 화해를 위한 접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골수에 박힌 신분적 우월성을 극복하는 서희의 접근 방식은 형식적 논리가 아니라 감정 속에 끼어든 정과 연민, 나아가 신분을 넘어 자생한 길상에 대한 사랑이다. 지켜야 할 형식적인 신분과 감성적 본능에서 발현한 사랑을 두고, ‘무시무시한 내적 투쟁’을 거쳐 신분이라는 형식을 탈피하고 있다.⁵⁴⁾

49) 4-306.

50) 『論語』, 第三, 八份, “祭如在 祭神如神在”

51) 朱熹, 『論語集註』 第三, 八份, “程子曰 祭先祖也 祭神 祭外神也 祭先祖於孝 祭神 於敬愚謂 此門人記孔子祭祀之誠意”

52) 4-308.

53) 2-129.

이러한 내적 투쟁은 길상에게도 마찬가지다. “운명은 어디 있단 말인가, 평화는 어디 있고 사랑은 또 어디 있는가, 심장을 쪼개어 받쳐질 그것들은 도시 어디메에 있는가. (중략) 싸움이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과의...”⁵⁴⁾라는 독백 속에 보이는 길상의 심리 상태는 치열하다. 상전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 불경으로 인식되었던 봉건적 완고함과 신분적인 열등감은 사랑에 대한 배타적 행태로 나타난다. 동시에 그들을 분절했던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자신과의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 된다. 이와 같이 서로의 팽팽한 경계를 허무는 것은 의외의 사건이다. 양반과 평민 사이의 치열한 신분적 갈등의 경계선을 허무는 시대적 사건이 동학 농민혁명이나 일제 침략과 같은 사건이듯이 이들 두 사람 사이의 경계선도 사건에 의해 와해된다.

회령 사건의 경우가 그렇다. 신분적 우위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신분이나 제도 같은 외적 형식보다 사랑이나 연민과 같은 내적 진실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인다. 옥이네 방문 후 서희가 보인 심리적 변화는 형식뿐인 기득권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실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타협이나 화해의 선언과도 같다. 그래서 양반이라는 무거운 형식을 벗어버린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자유를 얻었다.⁵⁵⁾ 이른바 고루한 봉건적 결박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고 있다. 한 민족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역사도 대개의 경우 사건을 통해서 다른 단계로 비약하고 발전한다. 작가는 서희와 길상의 갈등과 화해 서사에서 전환시대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화해를 위한 또 다른 사건은 자식들의 출생과 성장과정이다. 그녀는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연민을 통해서 신분이나 가문 등의 권위보다 현재 자녀들의 변화된 신분에 자신을 맞추어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전에 그녀가 생존을 위해 권위적이거나 이기적인 판단에 의존했다면 자식과의 만남은 희생적, 이타적 감정과의 만남이다. 자식에 대한 연민은 생명에 대한 대자대비한 배려이며 윤리적, 희생적, 이타적 성격을 지닌다. 또 본능은 자신을 향

54) 4-323.

55) 4-331.

56) 4-406.

한 向我的 욕구인 반면 연민은 외부로 열린 向他的 배려이다. 서희가 윤국이나 환국을 자신의 또다른 자아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들 자식을 공유하는 길상을 타자화 한다면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따라서 화해는 길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구조적 관점에서 길상을 이전의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서희의 화해는 길상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희는 주치의 박효영의 자살을 계기로 어머니인 별당아씨와 구천의 사랑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골수에 사무친 자신의 양반 의식을 깨고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자기 자신과도 화해한다.⁵⁷⁾ 양현을 두고 길상과 논의하는 장면은 계급적 이거나 이념적 타자들과는 일체의 대화나 타협을 거부했던 이전과는 대비된다.⁵⁸⁾ 양현의 신분을 자신의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서희와 모든 것을 양현 자신의 뜻에 맡기려는 길상의 태도 사이에 놓인 장벽은 대화를 통해 해소하기도 한다. 화해의 완전한 해소는 양반과 상민, 너와 나의 차별이 없어진 즉자적 일체감일 것이다. ‘길상의 눈빛은 서희 자신의 눈빛이고, 그쪽에서 빛나면 이쪽에서도 빛이 나고, 그쪽에서 못 견디면 이쪽에서도 못 견디는’⁵⁹⁾ 구획과 단절의 해소가 화해의 결말이다. 서희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당시 사회 전반적 분위기는 이와 같이 양반과 평민, 닫힌 에고이즘과 열린 휴머니즘 사이의 구획된 단절이 외부세계의 민주적 사조와 더불어 해체되고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신분 또는 이념 사이의 내통은 개인적인 것에서 조선 민족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확대되고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당시 조선 평민들의 의식은 유교 문화는 주로 대동(大同)의 연대와 도리, 예의염치 등의 생활윤리와 충, 효와 같은 유교의 내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성리학의 이론이나 사변적 논쟁과는 구별되는 실용적인 가치로서의 유교문화이다. 서희와 길상의 갈등과 화해도 그러한 내적 가치에 대한 신분간의 이해 차이에 대한 조율의 과정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즉 양반과 평민은 시혜와 보은의 관계로 보았던 양반의 윤리가 양반과 평

57) 13-283.

58) 13-293.

59) 9-12

민은 호혜의 배려 관계라는 평민의 윤리가 충돌,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또한 전환기 근대 조선의 모습이기도 하다. 조선의 평민 윤리가 양반에 대한 타도나 전복이 아니라 화해를 지향했던 것은 유교의 실용적인 윤리와 동학의 人乃天, 무교의 解冤 의식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내천이나 해원이 타도나 전복의 의미와 상통할 수가 없고, 평등이라는 근대적 민주주의가 타도나 전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평등에 대한 자발적 인식은 강자의 약탈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 민족의 주체가 평민들 자신이라는 주체적 인식이 확산되고 보편화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4. 맺음말

허구적 가상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창작된 소설을 사상 논문 연구 자료로 삼는다는 발상은 검증된 역사 자료를 근거로 사실을 증명해 가는 학술 논문으로서는 실증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 논문은 근본적인 한계가 없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체로 다루고 있는 평민 유교는 정사에 기록된 역사적 근거나 학술사적으로 완결된 저서나 논문 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 기록이 없으므로 역사적 사실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 시도로 역사적 사건과 기록들에 기초하여 일반 평민들의 삶과 휴머니티를 재현한 역사소설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비록 개별적인 사건들이나 개인의 문집 등이 아니더라도 정사의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재현된 평민들의 삶과 의식은 당시의 사실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본다.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가상의 사건을 구상하고, 가상의 사건 속에 추론 가능한 논리적 타당성을 탑재한 역사소설의 특성에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양반과 평민, 지배 권력과 피지배 집단, 지주와 소작농의 양분된 단절은 봉건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였다. 비록 일본의 식민지배 전략으로 이식된 근대화이기는 하지만 고착된 전통의 벽을 무너뜨리면서 유입된 서구적 근대성은 당시 조선의 평민 사회에 변혁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물론 그 이

전 동학 혁명을 계기로 기층 민중의 자발적인 개혁의지가 사회 전반에 공유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미완으로 끝났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의 강압적인 유입에 조선 평민들의 의식이 타율적으로 조작되지는 않았다. 반대로 내재적 힘은 자주적 독립이나 계급 없는 수평적 연대의식으로 진화한 경향이 있다. 토지는 이러한 평민 의식이 재현된 공간이다. 서희가 상징하는 완고한 전통과 길상으로 상징된 기층 민중의 변화의 충돌은 그 둘의 결말처럼 와해가 아니라 화해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조선의 새로운 재건을 상징하고 있다.

유교의 외형적 이념과 불교나 무속의 내면적 靈性이 융합된 전환 시대의 평민 유교가 한국적 개성을 지니고 전환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유교의 전근대성을 극복한 대동의 연대와 도리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유교의 전근대성 극복이란 양반 사회의 성리학적 관념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실용, 실천의 윤리적 가치만을 실용적 필요에 따라 수용했다는 것이다. 연대와 도리는 기울어진 민족의 생존을 위한 강한 욕구가 반영된 덕목들이다. 일제강점기 자발적인 민중운동이나 독립 투쟁의 참여는 이러한 실천적, 현실적인 융합적 가치의 실현이다. 『토지』에 등장하는 이윤, 윤보, 송광수 등 구시대의 논리에 저항하거나 새로운 근대적 의식의 실천에 앞장섰던 인물들은 당시의 평민 의식이 더 이상 봉건 구조의 수동적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 소설적 사례이기도 하다. 저자가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자 시도했던 것도 이러한 진화된 평민 의식일 것이다. 성리학의 해묵은 空談的 사변들과 자의적인 해석에서 파생된 이념의 도구화-天尊地卑, 男尊女卑 등-를 현실적 실용성으로 대체한 평민들의 유교 의식은 오늘날까지 한국의 현대를 지탱해온 자산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사료

박경리, 『토지』 16권, 솔 출판사, 1993.
『朝鮮日報』

2. 논저

- 고지현, 「문명/야만의 경계와 대중개념: 서양 근대 태동기의 국가·정치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17, 사회와철학연구회, 2009.
-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 김인걸, 「1960, 70년대 ‘內在的 發展論’과 韓國史學」, 『韓國史認識과 歷史理論』, 金容燮教授停年紀念韓國史學論總 1, 지식산업사, 1997.
- 김지하, 『생명』, 솔출판사 보급판, 1994.
- 김진승, 『서울에 판스홀을 訪하라』, 현실문화연구, 2004.
- 김충열, 『哲學散稿 I』, 서울: 온누리, 1994.
- 김현숙, 「박경리 문학의 생명사상」, 『한중인문학연구』 24, 한중인문학회, 2008.
- 노재현, 「바람직한 국사 참고서 서술 방향 탐색: 조선후기 신분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東學農民 革命과 社會變動』, 한울, 1993.
- 신용하,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일고찰」, 『한국 근대사론I』, 지식산업사, 1977.
- 육영수, 「‘식민지 계몽주의’에 관한 트랜스내셔널 시각과 비평 : 근대의 자원병 혹은 징집병」,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41,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16.
- 윤병석, 「일제 식민지 통치기의 시대 구분 문제」, 『한국 근대사론I』, 지식산업사, 1985.
- 윤인수, 「日帝時代に 발생한 大韓帝國時期 임명장 위조의 양상과 사회적 배경 : 농촌의 신분의식 잔존 양상과 관련하여」, 『古文書研究』 34, 한국고문서학회, 2009.
- 이명호, 「한국 가족중심주의의 역사적 기원: 조선후기와 근대 전환기 종교영역과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미화,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 『한국문학논총』 49, 한국문학회, 2008.
- 이상진, 「박경리의 『토지』 연구-인물형상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이영훈, 「18, 19세기 大渚里의 身分構成과 自治秩序」,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 이을호, 『한사상과 民族宗教』, 일지사, 1990.
- _____, 『한사상의 苗脈』, 사사연, 1986.
- 이호철, 「식민지하 한국의 농업경제를 형성한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이훈상, 「回顧와 展望: 韓國史學界 1993~1995(朝鮮後期)」, 『歷史學報』 152, 歷史學會, 1996.
- 장미영, 「박경리 소설 연구-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정석중, 「朝鮮 後期 社會 身分制의 崩壞-蔚山府 戶籍大帳을 中心으로」, 『大同文化 研究』 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4.
- 조선헌병대사령부·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조선 3·1 독립 소요사건-개황, 사상 및 운동」, 『독립운동사 자료집』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 지두환,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서울: 역사문화, 1998.
- 최유찬, 『한국 근대문화와 박경리의 『토지』』, 서울: 소명출판, 2008.

3. 기타 자료

다음백과(<https://search.daum.net>, 검색일: 2022.06.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search.daum.net>, 검색일: 2022.06.13.)

〈Abstract〉

Commoners Confucianism in the Age of Transition II
- Park Gyeong-ri 『The Land』 The Mechanism of Conflict
and Reconciliation between Seo-hee and Gil-sang -

Seo, Uk-Su

The transition period Joseon was a period in which the feudal system centered on Confucianism was overthrown and changes were sought while embracing a new modern culture. In particular, Joseon faced the double challenges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not actively participating in modernization in the process of exile and fighting against the imperialist colonial strategy. However, the dismantling of tradition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solve the discrimination of status that had been compatible for a long time, and also served as an opportunity to horizontally dispel the discriminatory status of yangban Confucianism and commoners Confucianism. This thesis is an experimental study examining the fusion process of yangban Confucianism and commoners Confucianism based on the cas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reproduced in the historical novel 'Toji'. Along with the dissolution of social status, it is natural for the ideologies of nobles and commoners to also go through a process of dissolution and integration. 'Land' depicts the process of identity and ideological clash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stubborn yangban forces who want to maintain the existing authority and order based on Confucianism and the commoners who want to respond to the changing generation based on the ideology of Buddhism, shamanism, and even Donghak. It is explained with a focus on personal narratives. Thus, the novel development coincides with the drastic change process of Joseon. This is because the author of this novel reproduced the history of Joseon in the transitional

era in the form of a novel. Through this, the late history of Joseon is explained not as an unfortunate history of colonialism, but as a process of re-creating a new ideology for our people. In other words, it explains the creation of a commoner-centered national ideology that fuses the Confucian ideology of morality and consideration with the traditional religious ideology of spirituality and sympathy. These traditions remain in effect even today after liberation.

* Key Words: Commoners Confucianism, Morality, Consideration,
Equality Consciousness, Modernization, Reconciliation

· 논문투고일: 2022년 6월 16일 · 심사완료일: 2022년 7월 12일 · 게재결정일: 2022년 7월 25일
